

‘머리로 광’ 손흥민, 4G 연속골로 시즌 10호골...리그 득점 선두

토트넘, 번리에 1-0 승리...11위에서 5위로 경추 후반 31분 코너킥 세트피스서 번리의 골문 열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손흥민(토트넘)이 4경기 연속골로 시즌 10호골을 달성했다.

손흥민은 27일 오전 5시(한국시간) 영국 번리의 터프 무어에서 열린 번리와 토트넘의 2020~2021 EPL 6라운드에서 선발 출전해 후반 31분 결승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리그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를 포함해 4경기 연속골이다.

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4라운드(2골 1도움), 19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5라운드(1골 1도움), 23일 LASK 린츠(오스트리아)와의 UEFA 유로파리그 J조 조별리그 1차전(1골)에 이어 골맛을 이어갔다. 또 총 9경기 만에 시즌 10호골(4도움) 고지를 밟았다.

리그 6경기에서 8골(2도움), 유로파리그 예선을 포함해 3경기에서 2골(2

도움)를 기록했다.

손흥민은 도미니 칼버트 르윈(에버턴·7골)을 따돌리고 리그 득점부담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후반 추가시간에 교체됐다.

토트넘(3승2무1패 승점 11)은 웨스트햄전에서 3-0으로 앞서다 3-3 무승부에 그친 충격에서 벗어나며 11위에서 5위로 경추 뛰어올랐다.

지난해 번리를 상대로 인생 최고의 골로 꼽히는 70m 질주 득점을 성공했던 손흥민은 다시 한 번 번리의 ‘뉴 축구’에 철혈을 가하며 강한 모습을 보였다.

손흥민은 지난해 12월 번리와 2019~2020시즌 16라운드에서 전반 32분 토트넘 진영에서 70m가량을 질주해 득점에 성공했다. 상대 수비수 6명을 스피드와 속임 동작으로 모두 따돌리며 번리의 골네트를 갈랐다.

이 골은 영국 BBC, EPL 사무국 선

정 ‘올해의 골’에 이름을 올렸다. 영국을 넘어 유럽 전역을 놀라게 했다.

토트넘이 고전한 경기였다. 전반에 65%-35%로 높은 점유율을 챙겼지만 효율적이지 못했다. 번리의 밀집수비를 뚫는데 애를 먹으며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전반 중반까지 움츠렸던 번리가 중후반부터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번리는 전반에 5개 슈팅 중 2개를 유효슈팅으로 연결했지만 토트넘은 슈팅만 3개를 시도했을 뿐 유효슈팅은 없었다.

토트넘은 후반 12분 루카스 모우라를 빼고 에릭 라멜라를 투입해 변화를 꾀했다.

위기도 있었다.

후반 26분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제임스 타코우스키에게 결정적인 헤더를 허용한 것. 골키퍼 요리스가 손 쓸 수 없는 곳으로 향했지만 해리 케인이 머리로 막아내 실점 위기에서 벗어났다.

손흥민은 후반 29분 배후 침투를 통해 기회를 잡았지만 상대 수비의 태클로 무위에 그쳤다.



두 번째 기회는 놓치지 않았다. 후반 31분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해리 케인이 머리로 연결한 것을 손흥민

이 몸은 날리며 헤더로 연결, 꼭 닫혔던 번리의 골문을 열었다. 토트넘은 마지막까지 번리의 공세

를 잘 막아 손흥민의 골을 결승골로 완성했다.

뉴스



(왼쪽부터) 알칸타라, 로하스, 손아섭

뜨거운 개인 타이틀 경쟁...다승·타율 ‘끝까지 간다’

다승에서는 알칸타라·루친스키 경쟁

타율 부문은 로하스·손아섭·최형우 각축

KT 로하스 타격 5관왕 가능 여부도 관심사

KBO리그 정규시즌이 오는 31일 막을 내리는 가운데 개인 타이틀 경쟁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사실상 타이틀의 주인공이 정해진 부문도 있지만, 다승과 타율, 도루 등 타이틀의 주인공이 오리무중인 부문도 있다.

투수 쪽에서 가장 눈길을 끌리는 부문은 다승이다. 현재 라울 알칸타라(두산 베어스)가 19승으로 1위, 드류 루친스키(NC 다이노스)가 18승으로 2위다.

돌의 잔여경기 등판 여부에 따라 공동 1위가 될지, 알칸타라의 단독 1위로 막을 내릴지가 판가름난다.

지난 24일 잠실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시즌 19승째(2패)를 수확한 알칸타라의 잔여 경기 등판 일정은 두산의 순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5위인 두산은 산술적으로는 2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1승을 안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를 수 있는 4위 자리는 충분히 욕심을 낼 수 있다.

30일 열리는 두산과 4위 키움 히어로즈의 맞대결에서 4위의 주인공이 결정될 수도 있다. 그러면 알칸타라의 등판이 유력하다.

하지만 두산의 5위가 확정된 상황이면 알칸타라는 11월1일 벌어지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선발로 나선 가능성이 크다.

알칸타라가 정규시즌 경기에 더 이

상 등판하지 않는다면 루친스키는 공동 다승왕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루친스키는 지난 23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에서 4이닝 7실점(4자책점)으로 부진해 승수 쌓기에 실패했다. 20승 달성도 사실상 힘들어졌다.

하지만 루친스키는 NC가 5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 한 차례 더 등판이 가능하다. 알칸타라가 정규시즌 경기에 더 이상 등판하지 않고, 루친스키가 남은 한 차례 등판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공동 다승왕이 탄생하게 된다.

다승을 제외하고 투수 각 부문 타이틀의 주인공은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평균자책점 부문에서는 에릭 요키시(키움)가 2.10으로 1위고, 댄 스트레일리(롯데)와 애런 브룩스(2.50)가 뒤를 잇고 있다. 스트레일리는 시즌을 마치고, 브룩스는 가족의 교통사고로 인해 지난달 말 미국으로 떠났다.

스트레일리는 205개의 탈삼진을 뽑아내 이 부문 타이틀을 확정된 상태다. 2위는 알칸타라인데 177개를 기록 중이라 순위를 뒤집기가 불가능하다.

주권(KT 위즈)도 30홀드를 기록해 홀드왕에 등극했다. 2위 이영준(키움)과 5개 차인데, 키움은 단 1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세이브 부문에서는 조상우(키움)가 33개로 1위를 질주 중이고, NC 마무리 원종현(30개)이 3개 차로 2위다.

NC는 5경기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미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해 여유있는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종현이 순위를 뒤집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타격 쪽에서는 타율 부문의 막판 경쟁이 치열하다. 멜 로하스 주니어(KT)가 0.353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0.352의 손아섭(롯데)이 1리 차로 추격 중이다. 2위 손아섭과 3위 최형우(KIA 타이거즈)는 불과 2도 차다.

로하스와 손아섭은 나란히 4경기를, 최형우는 5경기를 남겨두고 있어 타율 순위는 언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다.

또 다른 격전지는 득점 부문. 로하스가 113득점으로 1위에 올라있고, 나성범(NC·112득점)과 김하성(키움·111득점)이 뒤를 바짝 추격 중이다.

타율과 득점 1위의 주인공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로하스의 타격 5관왕 달성 여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로하스는 46홀런으로 사실상 홀런왕을 확정지었고, 타점 부문에서도 공동 2위 김현수(LG), 양의지(NC·117개)에 무려 15개 차로 앞선 1위다. 장타율(0.689) 부문에서도 2위 나성범(0.600)에 크게 앞서있다.

로하스가 타율, 득점 부문 1위까지 석권한다면 타격 5관왕에 등극할 수 있다.

도루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부문 중 하나다. 2015~2018년 4년 연속 도루왕에 오른 박해민(삼성 라이온즈)이 32개로 1위를 달리며 도루왕 탈환을 노리는 가운데 심우준(KT)이 1개 차로 맹추격하고 있다.

김민경기자

전북 우승 8부능선...K리그1 최종전 상대 전적도 앞서

내달 1일 전북 vs 대구...울산 vs 광주 최종전 전북, 무승부만 거둬도 첫 K리그 4연패 금자탑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또 한 번의 역전 우승을 눈앞에 뒀다. 최종전 상대 전적도 전북이 울산 현대보다 유리하다.

전북은 25일 문수축구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26라운드 울산과 원정 경기에서 바로우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올 시즌 울산과 맞대결에서 3전 전승을 거둔 전북은 시즌 최종전을 남겨두고 승점 57점으로 울산(승점 54)을 제치고 단독 선두에 올랐다.

전북의 우승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내달 1일 홈구장인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대구FC와의 27라운드 최종전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우

승점을 들 수 있다.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울산에 짜릿한 역전 우승에 성공했던 전북은 또 한 번 극적인 챔피언 등극을 앞두고 있다.

전북이 우승을 차지하면 K리그 사상 첫 4연패의 금자탑을 쌓는다. 최종전 상대 전적에서도 전북이 유리하다. 전북은 홈에서 5위 대구와 만나고, 울산은 홈으로 6위 광주 FC를 불러들인다.

객관적 전력은 전북과 울산이 모두 앞서지만, 올 시즌 상대 전적은 또 다르다.

전북은 대구와 두 번 만나 모두 이겼다. 지난 5월24일 홈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고, 8월9일 대구 원

정에서도 2-0으로 이겼다. 세징야를 앞세운 대구를 상대로 무실점 완승이었다.

여기에 전북은 대구전을 이겨야 할 동기부여도 확실하다.

전북의 레전드 ‘라이언킹’ 이동국이 대구전을 마지막으로 현역에서 은퇴한다. 이동국은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3년 정든 그라운드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이동국의 출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떠나는 전설을 향해 마지막 우승을 선물하려는 전북 선수단 내의지가 매우 강할 것이다.

반면 울산은 올 시즌 광주전 승리가 없다.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1-1로 비겼다. 가장 최근인 지난 9월6일 홈 경기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한 울산이다.

물론 상대 전적이 또 한 번 재현될 거란 보장은 없다.

오히려 최근 흐름에선 대구가 상승세지만, 광주는 하락세에 있다. 대구는 지난 라운드에서도 3위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난타전 끝에 3-2 승리를 거뒀다.

유종의 미를 거두려는 대구가 지난 시즌 최종전에서 울산의 발목을 잡은 포항처럼 전북을 잡지 말란 법도 없다.

광주는 파이널 라운드 진입 후 4연패로 추락 중이다. 파이널A란 목표를 이룬 뒤 선수단 동기부여가 떨어졌다. 울산은 일단 광주를 잡은 뒤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야 한다.

서선욱기자

이소미, 여자골프 세계랭킹 42위...15계단 ↑

KLPGA 투어 입성 40번째 대회 만에 첫 우승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휴엔케어 여자오픈(총상금 8억원)에서 생애 첫 승을 챙긴 이소미가 세계랭킹 50위 내로 진입했다.

이소미는 27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42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주보다 15계단 순위를 끌어올렸다.

이소미는 지난 25일 전남 영암의 사우스링스 영암 컨트리클럽 카일 필립스 코스(파72·6420야드)에서 끝난 대

회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9언더파 207타를 기록한 이소미는 김보아를 1타차로 따돌리고 KLPGA 투어 입성 40번째 대회 만에 첫 우승을 거머쥐었다.

세계랭킹 상위권은 큰 변화가 없었다. 고진영이 세계랭킹 1위를 지켰고 김세영이 뒤를 이었다. 박인비는 한계단 하락한 5위가 됐다.

김미희기자

